

# 중년층의 은퇴설계 및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that Influence Middle-aged People's Retirement Planning and Financial Preparation for Old Age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 수 홍 성 희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tudies, Keimyung Univ.  
Professor Hong, Sung-H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middle-aged people's retirement planning and financial preparation for old age. The data was derived from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2015". The samples included 1,462 people from 40 to 64 years of age.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gender, age, education level, employment status, monthly family income, monthly expenditure on spending to support parents, and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condition. When the samples were divided by sex,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condition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r both men and women's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Age and education level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for women's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but not for men's.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analyze whether middle-aged people made financial preparation for old age. For the whole sample, whether or not a person was a regular employee, monthly family income, monthly expenditure on supporting parents,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condition, and retirement planning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determining financial preparation. For men, whether or not a person was a regular employee, monthly family income,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condition, and retirement planning were significant factors, for women whether or not a person was a regular employee, and retirement planning were the significant

\* 주저자, 교신저자: 홍성희(hsh@kmu.ac.kr)

factors in determining financial preparation. The results implied that retirement planning is needed for middle-aged people to prepare for old age financially while the financial preparation should differ depending on sex.

**Key Words :** 은퇴설계(retirement planning), 노후 경제적 준비(financial preparation for old age), 경제상태인식(perceived household economic condition), 종사상 지위(employment status)

## I. 서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17년 말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개인의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노후준비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와 동시에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전통적 가족부양체계가 빠르게도 크게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박창재, 2014). 결과적으로 개인의 노후준비의 수준이 낮고, 그 중에서도 경제적 노후준비수준이 낮으며, 고령 사회에서 노후 소득상실, 경제적 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경희 외, 2010; 백은영, 2011; 정순돌·이현희, 2012).

노후 경제적 준비를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이선형, 2007), 공적 노후보장체계의 역사가 짧으며(백은영, 2011) 연금가입을 실패 조사 결과(김정미·엄기욱, 2014)에 의하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모두 가입하여 안정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베이비부머가 6.0%에 불과해 이상적인 다층 노후소득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후에 경제적인 준비를 갖춘다면 건강을 유지하고 다양한 삶의 활동 기회를 높여주어 심리적, 정서적 만족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김정미·엄기욱, 2014) 반면 경제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저하될(박선영, 1999)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노후준

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노후 경제적 준비를 중년기부터 시작해 적절한 수준으로 갖춘다면 다가올 은퇴를 평안하게 수용하는데 도움이 된다(Anderson et al., 2000를 김정미·엄기욱, 2014에서 재인용). 앞으로 중년층의 평균수명은 현재 노년층에 비해 더욱 연장될 것이며, 은퇴 이후의 기간이 점차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최근 노후준비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집단은 중장년층이다. 우리나라 중년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 은퇴를 시작하면서 이들의 은퇴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과 은퇴 후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바 있다. 이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생활수준이 급격히 높아졌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던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했으며, 주관적 계층의 식도 높아(정경희 외, 2010; 박인숙·홍성희, 2013) 이들의 재무구조가 노년층에 비해 유리하고 나아가 노후준비가 된 상태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노후준비수준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방하남 외(2010)의 조사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소득수준은 높지만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은 오히려 낮았다. 정순돌과 이현희(2012)의 연구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노후준비수준이 예비노인세대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경제상태 및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이 높지 않은 원인과 배경으로 중년기의 부모부양과 자녀부양의 이중 부담이 빈번하게 언급되어 왔다. 즉, 중년층은 부모부양 뿐 아니라 자

녀를 결혼 후까지 지원하는 과도한 부양부담으로 인하여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며,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세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지만 자신은 자녀의 부양을 받기 어려운 세대 특성으로 인해 '끼인 세대'(caught generation)(Orthner, 1981) 혹은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Miller, 1981)로 지칭된다. 부모부양부담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중년 세대의 노후준비 시작을 지연시키고 준비의식 및 준비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중년층의 자녀 부양부담 또한 노후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잘하지 못하며(신승희, 2010), 공적 연금가입확률이 감소한다(김정미·엄기욱, 2014)는 연구결과는 자녀 부양비와 부양책임의식이 자신의 노후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높은 교육비 부담은 현재 다른 지출과 저축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는 미래를 위한 노후준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교육비 지출은 경제적 노후준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상이한 결과도 나타났다. 이선형(2009), 김정미와 엄기욱(2014)은 교육비 지출 비중이 낮거나 지출액이 적은 집단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았고, 교육비 비중이 높은 집단이 노후준비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도 더 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년층의 자녀부양 또는 부모부양을 위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노후 경제적 준비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소득을 비롯한 경제적 상태,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적 자원배분의 맥락에서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부모와 자녀부양에 대한 이중 부담 등 가족부양요인이 노후 경제적 준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증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중년기의 노후 경제적 준비가 강조되는 것은 노년기가 길어지는데 비해 은퇴시기가 앞당겨져

거나 정년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은퇴라는 생애 사건과 은퇴 후 생활에 대비한 설계가 필요하게 된다. 광의의 은퇴설계는 은퇴 후 전반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포괄하나 경제적 측면의 은퇴설계는 은퇴 후 수입의 감소에 대비한 계획과 준비를 의미한다. 은퇴설계가 구체화되어 있을 때 노후 경제적 준비의 시작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노후 경제적 준비를 계획하는 단계로 은퇴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경제적 준비의 실행에 선행하는 계획단계로 은퇴설계수준의 효과에 주목하고, 은퇴설계수준에 따른 노후 경제적 준비의 차이를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근거로 할 때 중년층의 부모세대가 아들 또는 딸에게 기대하는 부양 역할과 그로부터 형성된 중년층의 부모부양 의식 및 부양유형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김지경·송현주, 2008; Lin, & Yi., 2013), 성별에 따라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자원에도 차이가 나타난다(배희선, 2008; 홍성희, 2018). 이처럼 성별은 가족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성별에 따라 종사하는 직업의 안정성과 지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중년기 남녀의 은퇴설계 수준과 노후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중년기의 노후 경제적 준비에 대한 연구 경향은 주로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이선형·최은희, 2010; 김순미·고선강, 2012; 정지영·양세정, 2013; 김정미·엄기욱, 2014; 박창제, 2016). 그러나 노후 경제적 준비를 위한 저축과 투자는 현재 가족부양을 위한 지출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의사결정과정정을 거쳐야 하며,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에 한정된 소득을 배분하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한 은퇴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 가족부양변수, 은퇴설계변수에 초점을 두고 중년기 남성과 여성 근로소득자의 노후 경제적 준비의 경향을 비교

하고 차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중년층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 또는 노후준비를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성 또는 여성의 은퇴설계수준을 파악하고 노후 경제적 준비 결정의 특성과 성별 차이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중년층이 노후 경제적 준비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생활설계의 맥락에서 자원배분상태를 진단하고 자원관리의 장기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며,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족구성원, 즉 부모와 자녀세대, 그리고 자신에게 경제적 자원을 배분하며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후 경제적 준비의 개념과 관련 연구

노후준비의 개념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준비의 3가지 영역(김양이·이채우, 2008; 김주성·최수일, 2010)으로 제시되기도 하나, 많은 연구(이선형·최은희, 2010; 정지영·양세정, 2013; 한혜진·정순희, 2013; 김순미, 2014; 박창제, 2016)에서 경제적 준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후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도 경제적 문제는 다른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개개인은 은퇴 이후 주된 수입원이었던 근로소득을 상실하게 되나 연금 등 지속적인 소득원을 비롯하여 노후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생활수준의 하락과 나아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노후 경제적 준비는 많은 연구(양세정, 2010; 정지영·양세정, 2013; 김순미, 2014; 김정미·엄기욱, 2014)에서 Ando & Modigliani(1963)의 생애

소득가설(Life-Cycle Income Hypothesis)을 바탕으로 그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 생애 소득가설에 의하면 개인은 전 생애에 걸쳐 일정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가계소비는 평생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소비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은퇴 전 시기에 저축을 통하여 은퇴 후 소비를 준비해야 하며, 은퇴 전 저축을 통한 은퇴준비는 소득 발생시점부터 중단시점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은퇴준비도 합리적인 인간이 은퇴 후 소비를 위해 현재 저축하는 합리적인 경제행위로 해석된다(양세정, 2010; 정지영·양세정, 2013에서 재인용). 가족자원관리 분야에서 노후 경제적 준비에 대한 접근은 은퇴 및 노후준비 실태와 문제점(이소정, 2009; 백은영, 2011)에 초점을 맞춘 연구, 중년기의 노후준비와 가족부양의 관련성에 대해 부모 자녀세대 간 경제적 자원 이전으로 접근한 연구(김순미·고선강, 2012; 정지영·양세정, 2013), 영향요인 분석(이선형·최은희, 2010; 김순미, 2014), 성공적 노후의 구성요소로서 경제적 준비(정병은·이기홍, 2010; 배문조, 2011; 이서영, 2014)를 다룬 연구 등이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4.6%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대해 개인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에 대한 연구로서 백은영(2011)은 은퇴준비유형을 조사한 결과 주된 은퇴준비방법은 국민연금으로, 전체의 38.94%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다음으로는 예적금, 저축성보험, 개인연금, 부동산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리고 현재 소비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 대신 예적금, 저축성보험, 개인연금, 부동산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성이 개인연금, 예적금, 저축성보험, 개인연금, 부동산 등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여성의 평균수

명과 노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상황에서 적극적인 은퇴준비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편 여성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소정(2009)은 50대 이상 임금근로자가계의 은퇴준비 인식과 실제적 준비수준을 분석한 결과 학력, 소득, 직업지위가 높은 상층을 중심으로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중년층의 노후준비와 세대 간 자원이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계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요인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순미와 고선강(2012)의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가계소득과 노후생활준비에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 지표로 은퇴저축액과 은퇴자산액을 분석한 정지영과 양세정(2013)의 연구에서는 금융자산액과 부채크기가 클수록 은퇴자산액이 컸으며, 가계 수입이 높을수록 은퇴저축을 할 확률이 높으며 은퇴저축액 또한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김순미(2014)는 가계의 재무건전성 요인이 노후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급불능가계와 건전가계가 유동성위험가계에 비해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재무건전성 유형에 따라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은퇴 전 소득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이 은퇴준비의 결정, 준비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후 경제적 준비는 직업, 소득과 자산수준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한편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이 노후생활준비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미와 고선강(2012)의 연구에서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와 자녀에게 제공한 경우 모두 제공하지 않은 경우보다 노후생활준비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은 중년기 가정의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했다. 고선강(2014)의 연구결과 중위소득계층의 중년층은

부모나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경우 제공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자신의 노후생활비 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중년층이 부모 또는 자녀의 부양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우려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선형과 최은희(2010)는 노후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요인에 주목하고 중년층의 부모부양책임 인식과 자녀의 생활비지원 기대 등 가족관련 요인이 과거 경제적 노후준비 시작여부, 현재 저축여부, 이를 교차한 노후준비 안정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녀 생활비지원 기대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생활비 지원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이미 과거에 노후준비를 시작하였고, 현재 노후준비 안정가계가 될 가능성도 높았는데, 노후에 기대할 다른 소득원천이 없을 때 현재 지출의 우선순위를 노후준비에 두게 되고, 노후준비를 안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요구되는데, 서구에서는 자율성, 자아수용, 개인적 성장과 같이 자급자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경제적 준비와 안정, 안락한 생활과 가족관계 등이 강조되어 왔다(백지은·최혜경, 2007; 정병은·이기홍, 2010). 배문조(2011)는 중년기의 노후생활준비행동 중에서 경제적 준비행동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했다. 안현선 외(2009)는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성공적 노후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갖고 노후를 준비하는 태도는 노후 뿐 아니라 중년기의 생활만족도 증진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노후 경제적 준비는 중년기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하나 안정적인 직업과 충분한 소득, 자산 등의 경제적 자원이 전제되

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년기에 노후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또 다른 과업인 부모 및 자녀부양의 비용 지출과 상충되는 관계이기 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된 소득계층에서 부모 및 자녀부양과 노후 경제적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노년기에 건강을 유지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는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노년기의 다른 특성 및 문제가 경제적 자원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로 경제적 준비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 노후 경제적 준비의 개념은 은퇴준비, 노후계획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후에 예상되는 경제적 취약성에 대비해 한정된 경제적 자원으로 다양한 현재 및 미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이전, 연금, 저축, 보험, 자산 보유 등 구체적 방법을 계획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노후 생활설계 행동으로 정의한다.

## 2. 노후 경제적 준비의 영향요인

개인적 변수 중 성별에 따른 노후 경제적 준비의 경향은 연구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준비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신승희, 2010)와 여성이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이신영·최은희, 2010)는 여성이 노후 경제적 준비를 더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대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노동시장에서 빨리 퇴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진입비율이 낮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노후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alroux & Xiao, 1995; 이신영, 2009)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김정미와 엄기욱(2014)의 연구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노후 경제적 준비로 연금에 가입한 확률이 컸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공적연금 가입확률이 더

높았는데, 여성들이 비정규직, 임시직과 같은 불안한 직종에 집중 고용되어 있어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준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였다.

성별의 영향은 연령과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석재은과 임정기(2007)의 연구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과 여성의 은퇴준비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성이 여성이 비해 취업률, 정규직 비율 및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적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차경옥 외, 2008)를 통해 연령이 많아질수록 은퇴를 앞두고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방하남·김기현, 2002). 선행연구에서 교육수준은 대체로 노후 경제적 준비와 관련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실제 준비정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유진, 2005; 이소정, 2009). 신승희(2010)는 교육수준이 경제적 노후준비 가능성과 사적 경제적 노후준비선택 가능성, 그리고 부수적 경제적 노후준비 가능성 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정미와 엄기욱(2014) 또한 중졸 학력에 비해 전문대졸이상이 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1.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은 사람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유리하다고 해석하였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개인이 공적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고, 노후준비 저축액도 더 높으며, 은퇴 소득에 대한 적절성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하연, 1997; Malroux & Xiao, 1995; Anderson et al., 2000). 그러나 양세정과 이성립(2009)의 연구에서는 전문/자영자의 노후준비 가능성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적었는데, 전문/자영자의 은퇴 예상연령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예상되어 노후준비를 등한시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한혜진과 정순희(2013)의 연구에서는 직업지위가 노후 경제적 준비 수행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임시·일용직

집단이 상용직 집단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수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대부분의 가계에서 노후 경제적 준비를 근로소득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종사상 지위에 따르는 소득의 안정성과 소득액이 노후준비의 계획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월평균가족소득은 노후 경제적 준비와 관련이 있다. 김순미와 고선강(2012)은 중년기의 가계소득과 노후생활준비도에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선형과 최은희(2010)는 예비노인을 경제적 노후준비 안정도에 따라 불안정, 안정, 중간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안정적 노후준비집단은 기타 집단에 비해 소득이 가장 높았고, 현 경제상태를 좋은 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였다. 정지영과 양세정(2013)의 연구에서 가계수입은 은퇴자산보유 및 자산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은퇴저축행동여부 및 저축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김정미와 엄기욱(2014)은 가구소득을 하위 25% 집단에 비해 25~75% 미만의 중간집단의 연금가입확률은 2.00배, 상위 25% 집단의 연금가입확률은 2.70배 높게 나타나, 경제적 노후준비가 높은 소득계층위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고선강(2014) 또한 가계소득을 세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노후생활비준비의 충분성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 하위집단이 중위집단과 비교하여 노후생활비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고, 상위집단인 경우는 충분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보고하였다.

가계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이 가계경제를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월평균가족소득 못지않게 노후 경제적 준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형과 최은희(2010)의 연구에서는 현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았으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중년기가 생애주기에서 생활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 필요에 비해 소득이 부족하다

고 인식할수록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혜진과 정순희(2013)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노후준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 김정미와 엄기욱(2014) 또한 베이비부머가 경제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노후 경제적 준비를 위한 연금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족부양과 관련된 변수, 즉 부양가족수, 부모부양 또는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 의식과 부양비지출, 그리고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지원 등이 중년층의 노후 경제적 준비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승희(2010)의 연구에서는 노부모나 자녀 부양부담이 클수록 은퇴준비가 어렵다고 하였다. 박창제(2008)는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에 대한 부양부담으로 인해 가용자원이 적다고 인식할 경우 노후준비를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자녀수가 적을 때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 잘하며(신승희, 2010),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연금가입확률이 감소한다(김정미·엄기욱, 2014). 정지영과 양세정(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도가 낮을수록 은퇴저축을 할 확률을 높였지만, 그 금액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낮은 경제적 자립도는 자신의 은퇴저축행동에 동기를 부여하지만 상대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낮은 것이다. 또한 자녀 교육비용 책임을 크게 인식할수록 은퇴자산액과 은퇴저축액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 부양부담이 노후 경제적 준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년층이 부모부양을 위한 심리적 부담과 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호혜적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자산 이전이 중년층의 노후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미와 고선강(2012)의 연구에서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중년층이 인식하는 노후생활준비도가 제공하지 않는 중년층에 비해 높았던 한편 부모의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중년층의 노후생활준비도는 받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낮았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도

움을 받는 중년층은 현재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지영과 양세정(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상속을 받는 경우 은퇴자산액이 더 높으므로 나타남으로써 은퇴준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중년층의 노후 경제적 준비는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노후소득원과 생활비지출액을 예측하며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 방법, 액수 등의 정보를 구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노후 경제적 준비를 실행하기에 앞서 근로소득이 중단되는 은퇴 이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경제적 의미의 은퇴 설계는 은퇴 후 수입의 감소에 대비한 계획과 준비를 의미한다.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며,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수입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은퇴 후에는 수입이 없거나 감소되므로 경제적 계획은 은퇴 이전에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는 것이다(홍성희·곽인숙, 2007). 따라서 은퇴설계는 노후 경제적 준비에 앞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노후 경제적 준비를 실행하는데 선행하는 변수로 의미를 갖는다. Malroux & Xiao(1995), Anderson et al.(2000) 등의 연구에서 노후계획여부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후소득의 적절성이나 충분성, 안정성 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선행과 최은희(2010)의 연구에서는 노후계획을 구체적으로 한 경우 노후준비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았다. 정지영과 양세정(2013)의 연구 결과 은퇴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은퇴저축을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은퇴인식에 따라 은퇴준비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은퇴에 대한 준비의식과 은퇴설계 등이 노후 경제적 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년층의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과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노후 경제적 준비의 결정요인으로는 개인 및 가계관련변수, 가족부양변수, 은퇴설계변수를 설정하였다. 은퇴설계수준은 노후 경제적 준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Malroux & Xiao, 1995; Anderson et al., 2000) 동시에 다른 독립변수, 즉 중년기 남녀의 종사상 지위, 가족소득 등 개인 및 가계관련변수, 그리고 가족부양변수의 영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은퇴설계수준을 종속변수로, 개인 및 가계관련변수, 가족부양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은퇴설계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중년층의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와 은퇴설계수준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동기화되고 결정될 수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전체 중년층과 남성 및 여성 대상자의 은퇴설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둘째, 전체 중년층과 남성 및 여성 대상자의 노후 경제적 준비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로, 중년기 남녀가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가'로





### 3.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5 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전국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원자료 중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성 및 여성으로 부모 중 한 분 이상 계시고 자녀를 두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14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분석대상자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부양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있는 중년기 기혼남녀로, 본인의 직업과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2.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으로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가계관련변수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은퇴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계관련변수, 가족부양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및 VIF계수를 산출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종속변수인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에 대한 분석은 이항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가계관련변수, 가족부양변수, 은퇴설계변수 및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는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58.6%로 여성에 비해 많았고 남성의 평균연령은 약 50.6세, 여성의 평균연령은 49세로 남성의 연령이 약간 더 많다. 교육수준은 남성 13.04년, 여성 12.27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전체 대상자들이 모두 중년기에 속하며 근로소득자라는 공통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로서 상용근로자 비율

은 남성의 48.4%, 여성의 44.1%이며, 자영업자는 남성 34.9%, 여성 26.6%로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다. 월평균가족소득은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 300만원부터 400만원 미만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 범주의 순으로 분포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월평균부모부양비는 남성과 여성 모두 1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집단이 가장 많은 점에서는 동일하나 남성의 32%, 여성의 40.5%가 1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여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다. 가계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수준은 남녀 각각 2.80, 2.70으로 보통 수준에 약간 못 미친다.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부양책임을 자녀부양책임보다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약 5%대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이 부양하고 있는 총가족수는 각각 3.72명과 3.51명으로 3~4명의 수준이다. 한편 은퇴설계수준 또한 각각 2.70과 2.71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종속변수인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남성의 약 84%, 여성의 83%에 달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는 중년층 중에서도 자신의 직업과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2. 은퇴설계의 영향요인

중년기 남녀 전체의 은퇴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중회귀분석 결과 <표 3>과 같다. 개인 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이 각각 은퇴설계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상용근로자 유무, 자영업자 유무, 월평균가족소득, 월평균부모부양비, 경제상태인식 등의 가계관련변수가 유의한 요인이었다. 이들의 설명력은 24.7%이었다. 이중 은퇴설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상태인식으로, 직업 및 소득 등 객관적인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남성 (N=857)		여성 (N=605)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	예	725	84.6	502	83.0
	아니오	132	15.4	103	17.0
상용근로자여부	상용근로자	415	48.4	267	44.1
	기타	442	51.6	318	52.6
자영업자여부	자영업자	229	34.9	161	26.6
	기타	558	65.1	424	70.1
월평균가족소득(만원)	50~100 미만	9	1.1	26	4.3
	100~200 미만	86	10.0	87	14.4
	200~300 미만	154	18.0	106	17.5
	300~400 미만	209	24.4	133	22.0
	400~500 미만	159	18.6	119	19.7
	500~600 미만	95	11.1	47	7.8
	600~700 미만	62	7.2	19	3.1
	700 이상	83	9.7	68	11.2
월평균부모부양비(만원)	10만원 미만	274	32.0	245	40.5
	10~20 미만	112	13.1	103	17.0
	20~30 미만	143	16.7	72	11.9
	30~40 미만	109	12.7	56	9.3
	40~50 미만	31	3.6	17	2.8
	50~60 미만	108	12.6	54	8.9
	60~70 미만	12	1.4	5	.8
	70~100 미만	14	1.6	12	2.0
	100만원 이상	54	6.3	41	6.8
부모 경제적 지원 여부	받고 있지않다	814	95.0	570	94.2
	받고 있다	43	5.0	35	5.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세)		50.67	6.47	49.00	5.89
교육수준(년)		13.04	3.06	12.27	2.96
경제상태인식		2.80	0.76	2.70	0.80
부모부양책임		3.54	0.80	3.34	0.73
자녀부양책임		2.98	0.74	2.86	0.73
총가족수(명)		3.72	0.96	3.51	1.03
은퇴설계수준		2.71	0.91	2.70	0.80

\* 변수에 따라 응답자 수에 차이가 있음

가계경제특성보다 자신의 기대수준 또는 준거집단의 비교를 통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계경제상태가 은퇴설계를 준비하게 하는 더 강력한 동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상태인식의 영향력은 확인속과 홍성희(2013)의 연구 결과 주관적 경제수준이 노후생활준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과 유사한 경향이다. 다음으로는 월평균가족소득이 많을수록 은퇴설계수준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경향은 백은영(2011), 정경희 외(2011)의 연구에서 소득이 노후준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결과와 일치한다. 상용근로자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그리고 자영업자가 비자영업자에 비해 은퇴설계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종사상 지위나 소득 등의 경제적 요인이 은퇴설계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설계수준이 높았다. 선행연구(Malroux & Xiao, 1995; 김순미·고선강, 2012; 고선강, 2014)에서도 연령이 많을수록 노후준비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생애주기가 진전됨에 따라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이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설계를 하는 경향이 더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 수집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은퇴설계수준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은퇴설계수준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신승희(2010), 이선형과 최은희(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반면 Malroux & Xiao(1995), 이신영(2009)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은퇴설계의 영향 요인을 각각 분석한 결과(표 3 계속) 남성의 은퇴설계수준에 개인적 변수들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경제적 특성은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가장 큰 영향력은 보인 요인은 전체 집단과 마찬가지로 경제상태인식이며, 경제상태를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은퇴설계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상용근로자여부,

자영업자여부, 월평균가족소득, 월평균부모부양비의 순으로 은퇴설계에 영향을 미쳤는데, 부모부양비 지출이 많을수록 은퇴설계수준도 높았다. 남성 대상자의 경제적 특성은 모두 은퇴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객관적인 경제상태요인보다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개인변수인 연령과 교육수준이 은퇴설계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설계를 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상용근로자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은퇴설계를 더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월평균가족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상태인식이 양호할수록 은퇴설계를 하는 경향이 높았다. 여성의 경제상태인식은 전체 집단, 그리고 남성과 마찬가지로 은퇴설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은퇴설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체 대상자와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상태인식이 각각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공통점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객관적 경제수준보다 주관적 인식이 은퇴설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를 시작하는데 더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고 하겠다. 한편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중의 부양부담을 비롯한 가족부양 요인은 이들의 은퇴설계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중년층의 은퇴설계수준에는 가족부양부담과 연관된 총가족수, 그리고 자녀 또는 부모부양책임,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보다는 개인적 특성과 특히 경제적 특성이 더 강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특성의 강력한 영향력은 확인속과 홍성희(2013)의 베이비부머 대상 연구에서 월평균가계소득과 주관적 경제수준이 노후생활준비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경향이다.

〈표 3〉 은퇴설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 (N=1462)		남성(N=857)		여성(N=605)	
	B	$\beta$	B	$\beta$	B	$\beta$
<b>개인 및 가계관련변수</b>						
성별	-.115	-.062*	-	-	-	-
연령	.012	.080**	.009	.061	.019	.119**
교육수준	.057	.079**	.040	.057	.093	.123**
상용근로자여부	.246	.135***	.315	.174***	.192	.104*
자영업자여부	.193	.099**	.278	.148**	.094	.045
월평균가족소득	.068	.136***	.068	.133***	.068	.142**
월평균부모부양비	.025	.065*	.026	.068*	.022	.058
경제상태인식	.392	.335***	.384	.321***	.392	.343***
<b>가족부양변수</b>						
부모 부양책임	-.032	-.028	-.022	-.019	-.054	.043
자녀 부양책임	-.010	-.008	-.023	-.019	.016	.013
부모 경제적 지원 여부	-.060	-.015	-.122	-.030	.018	.005
총가족수	-.005	-.023	-.003	-.004	-.008	-.009
상수	.388		.457		-.049	
R <sup>2</sup> (Adj-R <sup>2</sup> )	.253	.247	.239	.229	.280	.266
F 값	39.779***		23.533***		20.218***	

\*P<.05 \*\*P<.01 \*\*\*P<.001

### 3.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의 결정요인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분석을 2단계로 실시하였다(표 4). 종속변수인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로 1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개인변수와 종사상 지위, 소득, 경제상태인식 등 가계경제변수, 그리고 가족부양변수로 부모 또는 자녀 부양책임,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 총가족수를 투입하였고, 2단계로 은퇴설계변수를 추가하였다.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한 1단계 로지스틱분석모형은 유의하며, 변수들의 설명력은 28.3%였다. 전체 대상자의 노후 경제적 준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종사상 지위를 나타내는 상용근로자여

부, 자영업자여부, 월평균가족소득, 월평균부모부양비, 경제상태인식, 부모부양책임이며, 상용근로자가 기타 집단에 비해, 그리고 자영업자가 기타 집단에 비해, 월평균가족소득이 많을수록, 월평균부모부양비 지출이 많을수록, 경제상태를 양호한 것으로 인식할수록, 부모부양책임을 낮게 인식할수록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상용근로자 여부였다.

2단계 로지스틱 분석을 위해 은퇴설계수준을 투입한 결과 변수들의 설명력은 39.6%로 증가하였으며,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상용근로자 여부, 월평균가족소득, 경제상태인식, 그리고 은퇴설계수준이었다. 즉, 상용근로자가 기타 근로자에 비해, 월평균가족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상태인식이 양호할수록, 은퇴설계수준이 높을수

〈표 4〉 전체 대상자의 노후 경제적 준비 결정 요인

	전체(N=1462)			
	모형1		모형2	
	B	S.E.	B	S.E.
<b>개인 및 가계관련변수</b>				
성별	-.236	.175	-.111	.187
연령	.008	.015	-.001	.016
교육수준	.088	.079	.050	.083
상용근로자여부	1.309***	.213	1.258***	.229
자영업자여부	.564**	.202	.357	.216
월평균가족소득	.277***	.065	.232**	.069
월평균부모부양비	.097*	.045	.062	.048
경제상태인식	.768***	.115	.373**	.127
<b>가족부양변수</b>				
부모부양책임	-.234*	.107	-.209	.116
자녀부양책임	.000	.114	-.008	.122
부모 경제적지원여부	.197	.369	.169	.390
총가족수	.159	.086	.144	.090
<b>은퇴설계변수</b>				
은퇴설계수준	-	-	1.187***	.119
상수	-2.999		-3.824	
-2 Log likelihood	983.046		866.421	
Nagelkerke R <sup>2</sup>	.283		.396	

\*P<.05 \*\*P<.01 \*\*\*P<.001

록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1단계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상용근로자여부였으며, 다음으로는 2단계 추가변수인 은퇴설계수준이 영향을 미쳤다. 상용근로자여부의 영향력은 한혜진과 정순희(2013)의 연구에서 상용직 또는 임시·일용직 여부가 노후 경제적 준비 실행여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결과와 일치한다. 월평균가족소득과 경제상태인식 등 가계경제요인이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를 결정하는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 또한 대체로 선행 연구의 경향과 유사하다. 김정미와 엄기욱(2014)의 연구 결과 소득이 높은 계층 위주로, 그리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양호할수록 노후 경제적 준비가 이루어

졌으며, 한혜진과 정순희(2013)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노후 경제적 준비를 실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 결정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성 대상자의 노후 경제적 준비 결정에 대한 1단계 모형은 유의하며,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29.3%였다. 남성의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를 결정하는 영향요인은 상용근로자여부, 월평균가족소득, 경제상태인식, 부모부양책임과 총가족수였다. 즉, 상용근로자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비해, 월평균 가족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상태인식이 양호할수록, 부모부양책임을 낮게 인식할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2단계로 은퇴설계수준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37.7%로 증가하였으며, 추가된 은퇴설계수준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반면 1단계에서 유의했던 부모부양책임과 총가족수의 유의성이 유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상용근로자가 기타근로자에 비해, 월평균가족 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상태를 양호하게 인식할수록, 그리고 은퇴설계수준이 높을수록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1단계 모형에서와 같이 상용근로자 여부로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종사상의 지위가 안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성 대상자의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1단계 모형에서 유의적인 영향요인은 상용근로자 여부, 월평균 가족소득, 그리고 경제상태인식이며, 이중 상용근로자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가족부양변수가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결과는 여성의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는 가족부양과 무관하게 결정되거나 여성의 가족부양부담이 남성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단계로 은퇴설계수준을 추가하였을 때 설명력이 1단계의 27.8%에 비해 43.6%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은퇴설계수준이 여성의 노후

(표 5) 남성 및 여성의 노후 경제적 준비 결정 요인

	남성(N=857)				여성(N=605)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B	S.E.	B	S.E.	B	S.E.	B	S.E.
<b>개인 및 가계관련변수</b>								
연령	.016	.019	.010	.020	-.007	.025	-.023	.027
교육수준	.017	.098	.004	.102	.207	.135	.111	.146
상용근로자여부	1.292***	.305	1.136***	.322	1.308***	.304	1.444***	.344
자영업자여부	.538	.277	.309	.294	.517	.304	.351	.331
월평균가족소득	.348***	.088	.297**	.092	.203**	.101	.169	.110
월평균부모부양비	.113	.059	.083	.061	.086	.072	.037	.079
경제상태인식	.774***	.155	.453**	.168	.753***	.177	.255	.199
<b>가족부양변수</b>								
부모부양책임	-.294*	.144	-.274	.152	-.205	.166	-.164	.186
자녀부양책임	-.031	.152	-.004	.158	.048	.174	-.012	.198
부모 경제적지원 여부	.119	.498	.184	.526	.245	.548	.027	.583
총가족수	.232*	.114	.196	.118	.077	.136	.114	.146
<b>은퇴설계변수</b>								
은퇴설계수준	-	-	1.000***	.150	-	-	1.491***	.201
상수	-3.671		-4.349		-2.306		-3.055	
-2 Log likelyhood	549.809		500.772		428.412		357.710	
Nagelkerke R <sup>2</sup>	.293		.377		.278		.436	

\*P<.05 \*\*P<.01 \*\*\*P<.001

경제적 준비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은퇴설계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상용근로자가 노후 경제적 준비를 실행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전체 대상자 및 남녀의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각 대상자의 종사상 지위 변수인 상용근로자여부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상용근로자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에 비해서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모두 근로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용근로자의 직업적 지위와 소득 안정성이 앞으로 다가올 노후 준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혜진 외(2013)의 연구에서 상용직 집단이 임시직과 일용직 집단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었

던 결과와 일치한다. 2단계 모형에서 추가된 은퇴설계수준 또한 전체와 남성, 여성 집단에서 노후 경제적 준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은퇴설계를 할수록 경제적 측면의 노후 준비를 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경향으로, 이는 노후 경제적 준비의 전 단계로서 은퇴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가계경제요인 이외에 가족부양,

은퇴설계의 영향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생애주기의 특성으로 볼 때 중년기는 부모와 자녀의 부양부담을 가지며 동시에 자신의 노년기에 대비한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나 부모와 자녀의 이중 부양부담으로 인해 노년기를 준비할 심리적, 경제적 여력이 없는 중간세대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처럼 중년층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부모 및 자녀부양과 미래의 자기부양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가족부양이 은퇴설계 및 노후 경제적 준비를 실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부양변수에 주목하였다. 노후 경제적 준비는 노년기 이전부터 시작되는 장기적인 행동이므로 사전 계획이 필요하며, 사전에 계획될 때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은퇴설계수준이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중년층은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경험한 세대로, 이들이 인식하는 가족부양의 역할 인식과 실제 부양행동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별 차이가 은퇴설계 및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성별에 따라 비교하였다.

연구목적과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첫째, 은퇴설계수준의 영향 요인으로 전체 중년층과 남성 중년층, 여성 중년층 집단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상태인식이었다. 또한 종사상의 지위, 가족소득 등 객관적 경제상태와 이의 배경이 되는 교육수준 등 관련요인이 대체로 은퇴설계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은퇴설계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상대적으로 직업과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고 정년을 보장받기 어려운 계층에서 은퇴를 대비한 계획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퇴설계수준은 더 저조한 것이다. 한편 가족부양과 관련된 부모부양책임, 자녀부양책임과 총가족수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중년층이 은퇴설계단계에서는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을 의식하지 않거나 부양책임이

은퇴설계를 준비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은퇴설계수준이 남성에 비해 높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은퇴설계수준을 비교한 결과 여성 중년층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은퇴설계수준에 차이를 보였던 반면 남성 중년층은 월평균부모부양비에 따라 은퇴설계수준에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의 부모부양비지출이 은퇴설계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부모 부양비 지출로 인해 은퇴설계를 하지 못하는 상층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부양에 대한 실질적 지출이 오히려 자신의 은퇴 이후를 준비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도 경제적 요인, 즉 상용근로자 여부, 월평균가족소득, 경제상태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근로자 여부는 여성 집단의 2단계 모형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종사상 지위 중에서도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노후 경제적 준비를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가장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집단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개인적 변수는 노후 경제적 준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통점을 보였다. 은퇴설계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독립변수들과 구분하여 2차로 투입한 결과 각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여성 집단의 노후 경제적 준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설계변수가 노후 경제적 준비를 실행하기 전 계획단계에서 매우 필요하며 나아가 은퇴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노후 경제적 준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노후 경제적 준비가 생애 전반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적거나 자신의 경제상태를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의 여유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중년층도 은퇴 이후를 대비한 전반적 설계를 시작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은퇴



후 생활비 추정, 생활비 조달방법과 조달을 위해 현재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및 정보 탐색 등에 대한 설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은퇴설계가 노후 경제적 준비를 위한 첫 단계라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노후 금융상품과 재무컨설팅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 관련 주체들이 교육과 홍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족부양변수의 유의성은 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체 집단과 남성 집단의 1단계 모형에서는 부모부양책임이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으나 2단계로 은퇴설계수준을 투입했을 때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이 은퇴설계를 촉구하게 되는 동기로 작용하면서 은퇴설계수준을 높여주며 결과적으로 노후 경제적 준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녀부양책임은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중년기가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차이가 있으나, 중년층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 제공과 부모역할 수행이 중년층의 전반적인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강유진(2005)의 연구에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제공은 노후준비에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년층이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유지되어 왔던 부모부양 책임을 고수하는 반면 자신은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으며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전환되면서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의식과 무관하게 노후 경제적 준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 및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과 노후준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중년기의 발달과업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각각 독자적으로 시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은퇴설계수준 및 노후 경제적 준비의 결정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은퇴설계수준은 남성과 달리 연령과 교육수준 등 개인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 한편 월평균부모부

양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또한 남성의 노후 경제적 준비에는 부모부양책임과 총가족수가 유의한 요인이었던 반면 여성의 가족부양변수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의 가족부양에 대한 의식과 책임이 남성에 비해 크지 않아 여성 집단 내에서 노후 경제적 준비여부에 편차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은퇴설계수준변수를 추가했을 때 여성의 노후 경제적 준비에 대한 월평균가족소득과 경제상태인식의 유의한 영향력이 상실되고, 은퇴설계수준이 가장 강력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중년층의 경우 은퇴설계가 노후 경제적 준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그만큼 은퇴설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노후 경제적 준비가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중년층의 경제적 측면의 노후 준비에 대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이다. 그러나 노후 경제적 준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소득액과 자산액, 부채액,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취업여부와 근로소득, 종사상 지위 등 경제적 특성에 대한 자료가 미비해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영향요인으로 자녀교육비 부담, 성인자녀 또는 기혼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 부담 등 자녀부양요인이 세부적으로 조사되지 않아 이를 변수로 활용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중년층의 노후 준비와 관련된 경제적 요인을 측정하는 변수들을 보강하고 노후 준비의 제약요인으로서 부모와 자녀 부양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지원유형과 지원액, 지원 빈도 등 이중부담을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는 정교화와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 및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이외에 심리적 측면의 부양부담을 추가해 경제적 지원 또는 비용 지출과 심리적 부담의 영향을 비교한다면 본 연구 결과 밝혀진 가족부양부담이 중년층의 노후 준비에 제약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중년층이 현재의 가족부양과 미래의 노후 준비, 즉 자기부양에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유진(2005). 한국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 2) 광인숙 · 홍성희(2013).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 설계 인식과 준비도: 전 · 후기 집단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147-172.
- 3) 고선강(2014). 중년층의 소득계층별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 노후생활비 준비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79-102.
- 4) 김순미(2014).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4), 27-52.
- 5) 김순미 · 고선강(2012).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 준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59-76.
- 6) 김양이 · 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 7) 김정미 · 엄기욱(2014).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4), 197-221.
- 8) 김주성 · 최수일(2010).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3), 97-119.
- 9) 김지경 · 송현주(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복지연구, 24(3), 77-98.
- 10) 박선영(1999).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박창제(2008). 중 ·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 12) 박창제(2014). 베이비부머와 전 베이비부머의 재무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3, 309-335.
- 13) 박창제(2016).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직전 세대의 사적 재무적 준비와 영향요인 비교. 노인복지연구, 71(3), 305-333.
- 14) 방하남 · 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15) 방하남 · 신동균 · 이성균 · 한준 · 김지경 · 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한국노동연구원.
- 16) 배문조(2011). 중년기의 성공적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노후생활준비의식이 노후생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45-61.
- 17) 배희선(2008). 중 · 노년기 가계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이전여부 증여와 상속을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47-79.
- 18) 백은영(2011).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연구, 27(2), 357-383.
- 19) 백지은 · 최혜경(2007).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137-153.
- 20) 석재은 · 임정기(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격차 및 소득원 차이와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7(1), 1-22.
- 21) 신승희(2010).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2) 신하연(1997). 중년기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대비 수준과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안현선 · 김효민 · 인진경 · 김양희(2009). 중년기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137-155.
- 24) 양세정 · 이성림(2010). 노후 경제적 대비 여부에 따른 가계경제의 차이와 재무관리행동. 한

- 국가정관리학회지, 27(1), 1-16.
- 25) 양세정(2010). 적자가계의 특성 및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135-159.
- 26) 이서영(2014). 중년기 기혼여성의 노후준비와 위기감이 결혼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29-46.
- 27) 이선형(2007). 중년기 가구의 노인 및 자녀 세대 부양과 노후준비와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 28) 이선형 · 최은희(2010). 안정적 노후준비 가계의 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93-212.
- 29) 이소정(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 72-80.
- 30) 이신영(2009).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논총, 28(1), 205-224.
- 31) 정경희 · 이소정 · 이윤경 · 김수봉 · 선우덕 · 오영희 · 김경래 · 박보미 · 유혜영 · 이은진 (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2) 정병은 · 이기홍(2010).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조사연구: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2), 45-69.
- 33) 정순돌 · 이현희(2012). 가족특성과 노후준비의 관계: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세대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8, 209-232.
- 34) 정지영 · 양세정(2013).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 영향요인: 세대 간 자산이전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199-219.
- 35) 차경옥 · 박미연 · 김연주(2008). 20.30대 임금 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149-163.
- 36) 한혜진 · 정순희(2013).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6(2), 35-61.
- 37) 홍성희 · 박인숙(2007).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89-104.
- 38) 홍성희(2018). 기혼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수혜의 영향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1), 79-98.
- 39) Anderson, M. Li, Y., Bechhofer, F., McCrone, D., & Stewart, R.(2000). Sooner rather than later? Younger and middle-aged adults preparing for retirement. Ageing and Society, 20(4), 445-466.
- 40) Lin, J. & Yi, C.(2013).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International Sociology, 28(3), 297-315.
- 41) Malroux, Y.L & Xiao, J.J.(1995). Perceived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17-24.
- 42) Miller, D.A.(1981). The 'sandwich' generation: Adult children of the aging. Social Work, 26, 419-423.
- 43) Ando, A. & Modigliani, F.(1963).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53, 55-84.
- 44) Orthner, D.K.(1981). Intimate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marriage and the family. Reading, MA: Addison-Wesley.

- 투 고 일 : 2018년 03월 01일
- 심 사 일 : 2018년 04월 15일
- 게재 확정일 : 2018년 05월 08일